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1>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어딜 감히, 감히..."

問 如何是道 師云 不敢不敬

도에 대해 묻는가, 역대로 도의 본질에 대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는 깊고 은밀하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만사(萬事)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萬物)에 들어 있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도는 세상사의 근원인 것이다.

도는 이렇게 만사에 나타나지 않아 볼 수 없고, 인위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없다. 도는 불들려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도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것인가. 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듯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세상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때서야 비로소 도가 보인다.

한 스님이 물었다. "현중의 현(玄)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얼마나 오래 현(玄)하였는가?" 그 스님이 답했다. "오래 되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을 만난 것이 다행이지, 현(玄)이 이 못난이를 죽일 뻔했구나."

問 如何是玄中玄 師云 玄來多少時也 學云玄來久矣 師云 賴遇老僧泊舍 玄殺這覆生

현중의 현은 깊은 경계 중에서도 깊은 경계를 말한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항상 깊은 경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질문한 학생도 오랫동안 깊은 경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오매일어(癡眠一如나 숙면일어(熟眠一如)까지 들어가 꿈속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다면 상당 부분 무의식을 극복한 경계이다.

이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 보다 더 깊은 경지는 없는가?' 하고 궁극해 한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현의 경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여기서도 깊은 경계에 들어간 학인을 못난이(屢生)라고 비웃고 있다. 현에 빠지면 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 스님은 이외에도 <조주록>에서 여러 번 현(玄)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조주는 왜 현을 부정하는가? 현의 경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사가 도이다. 여기서 유

혹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높은 경계이다. 그것을 모르고 평생 현에 빠져있다면 현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학인의 자기(自己)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뜰 앞의 잣나무를 보이라."

問 如何是學人自己 師云 還見庭前柏樹子

학인의 '자기'는 학인의 '주인공'을 말한다. 흔히 자성, 본성 등으로 표현한다. 학인이 자기의 주인공을 묻자 조주 스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뜰 앞의 잣나무를 보이라" 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주인공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화두 같지만 화두가 아니다. 그러나 화두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곧 알 수 있다. 힌트를 준다면 잣나무에 절대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잣나무가 등장한 것은 조주 스님이 기거하는 방의 뜰 앞에 잣나무가 서 있었기 때문이

현에 빠지면 현이 사람을 죽인다

땅 위에 스승과 제자는 반드시 존재

다. 만약 거기에 단풍나무가 있었다면 "저 단풍나무를 보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이 생각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해설하지 않았다. 독자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화두가 아니다.

조주 스님이 상당히 설명했다. "오래 참선해 온 납자라면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금을 통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신참자라면 반드시 이치를 궁구해 얻어야 한다. 그 대들은 300, 500 혹은 1000명의 대중을 쫓아가거나, 비구·비구니에 치우치지 말라. 총림의 주지라고 자칭하면서 막상 불법에 대해 물으면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처럼 한마디 말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도리어 남은 그르고 나는 옳다고 말하면서 얼굴에 열을 올리니 세간 사람들이 점잖지 못한 막말을 하는 것이다. 진실로 불법의 진수를 밝히려는 뜻이 있다면 노승이 당부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말라."

師上堂云 若是久參底人 莫非眞實 莫非亘古亘今 若是新入衆底人也 須究理始得 莫卻者邊三百五百

一千 傍邊二衆 叢林稱道好箇住持 泊乎問著佛法 恰似炒沙作飯相似 無可施爲 無可下口 卻言他非我是 面赫赤地 良由世間出非法語 眞實欲明者意 莫辜負老僧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수행자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채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조주 선사의 이 당부는 수행자라면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문구이다.

오늘날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불법의 진수를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고 했다. 초심자 때에 깨달아야 한다. 일단 깨닫고 수행해간다면 일상사가 곧 수행이 될 것이므로 결코 남에게 욕먹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주지가 되려고 출가한 자들은 중이 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오로지 주지가 되기 위해 온갖 치사한 짓을 무릅쓴다. 절의 위치에 놀려 신도가 많아지면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으스스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참다운 교화는 흔적이 없다고 했는데 스승도 제자도 없을 때는 어떠한지?" 조주 스님이 다시 물었다. "누가 너에게 와서 물으랴만 했는가?" 스님이 답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주 스님은 문득 한 대 때렸다.

問 眞化無跡無師弟子時如何 師云 誰教你來問學云 更不是別人 師便打之

조주 스님은 이 땅 위에 사는 이상 스승과 제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없으니,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조주 스님은 학인에게 "누가 너에게 와서 물으랴 했는가?"하고 묻는 것은 너에게 묻도록 한 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다. "그 자가 있다면 스승이 있는 것 아닌가. 너에게 가서 묻도록 지시하는 자가 있으니 그자가 스승이야" 라고 대답한 것이다.

학인은 못 알아듣고 누가 특별히 가르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네 말은 틀렸다. 분명 내가 와서 질문할 때는 누군가 질문하도록 시킨 자가 있어. 모르겠는가? 내, 내가 한번 그자를 보일 테니 똑바로 알아라" 하고 때렸다.

조주 스님의 이 일방은 자비가 넘치는 일방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6

등불을 밝히다

또 장명등(장명)으로 항상 밝히는 등불은 바르게 깨달은 마음이나, 이는 확실한 깨달음을 등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몸을 등 받침으로 삼고, 마음을 등잔으로 삼고, 믿음을 심지로 삼고, 계향(계율을 지키는 것과 그 공덕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향에 비유한 말을 기쁨으로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등불로 삼아야 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의 등을 켜서 온갖 무명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없애버려야 하느니라. 이 법으로 차례대로 깨달으면 곧 하나의 등으로 백천등을 켜되 등과 등이 차례대로 밝혀져 끊어짐이 없으므로 장명등이라 하느니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가 연등이셨느니라.

이치가 이러하거든 어리석은 중생들은 여래가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것만 하고 유훈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간의 소유등을 켜서 빈방을 비추는 것으로 가르침대로 행한다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부처님이 눈썹사이의 한 터럭으로 광명을 놓으셔도 일만 팔천 세계를 비추셨으며 몸의 광명이 모두 나타남만 사방세계를 두루 다 비추시니 어찌 이 같은 세속의 등으로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이치를 자세히 살피면 당연히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리라.



동성 스님 작

정진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마음을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들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남을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깨닫지 못한 이가 법을 설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에게 길을 일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기쁨이 필요하듯 계향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향이란 우주를 하나로 보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본래 마음이 활짝 열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주며 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무명과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바로 보고 집착하지 않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장명등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해명을 끊어지지 않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자들이 하나의 도리를 깨달아 법을 전해 불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서 주위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을 갖고 있

습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아 지혜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을 전하는 것이 장명등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신 분이 연등 부처님입니다. 연등 부처님도 장명등 같이 깨달아서 우주를 비취 볼 수 있는 지혜의 등입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장명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등이나 법당 앞에 등을 켜 놓으면 복이 온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유훈법은 육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사실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분명 돌아오기는 해도 행한 만큼 받을 뿐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이 눈썹의 한 터럭으로 광명을 비추는 것은 우주를 하나로 쓰고 보고 행하는 사람은 한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우주를 다 비취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은 불성이 가려져 능력이 있되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방을 비추는 등불만큼의 마음만을 쓰면서 어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크게 써야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천연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홍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